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93회)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구세주께서 응답하다

11절: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빛다
-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 3) 빛의 하나님이 왜 육신을 벗어내고 환원하셨을까
-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리하는 주님
-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 8) 여름장마를 못지게 하고 풍년들게 하겠다!
- 9)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지난호에 이어서)

이긴자의 풍운조화의 권능을 확신하고 증거하다

한편 2011년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진리대학에서 '국제신종교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원불교, 대순진리회, 승리제단, 통일교, 예수교회, 바하이교, 모르몬교 등 각종 신흥종교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개회식 첫날 21일에는 신종교기관 일관도(貫道)를 방문하였고 익일에 한강현 신인류문화연구소장은 'The Hidden Manna and The Philosophy of Eternal life(갑추었던 만나와 영생의 철학)'이라는 논문주제(166페이지 분량)로 발표하였습니다. '갑추었던 만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가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린 양식과 같은 것으로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또 불경에서의 '갑추었던 만나'는 금강과 같은 여래를 이룬 아미타부처님께서 발하는 범성광명 또는 감로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긴자(Victor)의 영생철학을 논하는 가운데 위의 논문 77페이지 상단에 북서태평양 태풍진로도(연대미상)를 파워포인트로 스크린에 띄워 한반도로 향해 불어오던 태풍이 갑자기 진로를 바꿔 동해안 내지 서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설명하였습니다.

진리대학에서 3일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종교문화답사로 자재궁덕회, 국제불광회, 도교사원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당시 태풍 메아리가 대만으로 향해 온다는 뉴스를 접한 일행은 6월 27일 타이베이 공항에서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강현 소장



2011년 대만 진리대학에서 열린 '국제신종교 학술대회'에 참가한 학자들의 기념사진
우측에서 다섯 번째 신인류문화연구소 한강현 소장
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ckeh1736/110123391106>

확신에 찬 음성으로 "제가 논문을 발표할 때에 이긴자가 태풍을 막는 것을 설명하였는데 듣지 못했습니까? 이긴자를 증거하는 전도사가 여기에 있는데 태풍은 대만으로 불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정된 일정대로 타이베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 26일 타이베이로 돌아온 일행은 도교사원인 보안궁, 행천궁, 자우궁을 답사하며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그때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메아리 태풍은 한강현 소장의 말대로 대만 앞바다에서 꺾어져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의 현재속도를 감안하면 내일 타이베이 공항에서 비행기가 뜬다고 해도 북한한 태풍 메아리가 한반도로 빠져나갈 만한 충분한 시간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또한 서울행 비행기의 이륙을 낙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근접한 메아리 태풍이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하니 서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조종하는 대로 태풍이 움직였지만, 백령도 근해에 와서 메아리 태풍이 딱 멈추어 서더니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영종도 인천공항에 비행기의 이착륙을 방해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저항하는 태풍의 풍무니를 냅다 꺾어치니 태풍 메아리는 북한 황해도까지 곤두박질치더니 곧바로 온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6월 27일에 타이베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당일 오후 4시 1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상 예보관에게 태풍의 진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밖에 이긴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과 만물을 구원하여 에덴동산을 회복코자 지상에 친히 강림하여 역사하고 있음 빛의 자녀들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예컨대 기상학과를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임관한 반기성 선생은 군생활 이삼여년 만에 공군 중앙기상부장이 되었고 대령으로 승진하였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움직이시는 당신 스스로를 증거하기 위해 기상부장 반기성 대령을 들어서 쓰셨던 것입니다. 유교집안의 효심 깊은 반기성 대령은 주변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갈 기회가 많았지만, 불심이 깊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망설였던 것입니다.

한때 대위 계급장을 달고 청수기상대장으로 지낼 때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는데, 충주시 불교신도회장이셨던 어머니는 아들 반기성의 쾌유를 위해 절에서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드님 병세에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절의 주지 스님께서는 "아드님을 교회로 보내시면 어떻까요. 기묘 교회에 나가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반기성 선생은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로 나가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실히 믿는 목자를 반기성 선생과 그의 부인 앞으로 보내어 그 목자의 얼굴

에서 하나님처럼 영광을 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체험한 반기성 선생은 그 자신속의 병마가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심한 천식으로 장기간의 약물복용에 의한 부작용이 일어나 신장이 망가지고 위에 염증이 생긴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천식이 크게 발작할 때에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2000년 5월 29일, 공군 중앙기상부장이 된 마흔일곱의 반기성 대령은 태풍의 진로를 마음대로 바꾸어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하 반기성 선생께서 저술한 '태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기상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간증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000년 9월 11일 새벽이었습니다. 반기성 대령은 아침 일찍 예보실에 나와 기상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수 자료를 보니 태평양에서 북상하는 태풍 사오마이(괘 동쪽바다에 발생한 '사오마이'는 베트남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금성이라는 뜻의 전단부에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이 일본에 집중호우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곳에 따라 6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구름이 우리나라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기상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당시 정보작전참모부장은 태풍의 진로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고 곧바로 태풍이 북상하면 항공기를 대피시킬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은 항공기, 특히 대형 기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격납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이 예상될 경우 대형 기종은 태풍 진로 밖으로 대피시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육군과 해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약천후가 예상되는 지역의 시설 보호를 위해 미리 배수로를 확보하고 절개지를 덮어주는 등의 예방활동을 합니다. 그만큼 약천후 때의 기상예보는 중요합니다.

다음날 최종 결정을 해서 보고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난감했습니다. 대부분의 태풍이 북위 27도까지 북상한 후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진로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보실로 돌아와 태풍을 분석했습니다. 중심기압이 925hPa(헥토파스칼)의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대만의 진로 예측을 살펴봤

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중간 지점에서 서해상으로 북상해 라오동반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예보하고 있었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보고하면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관행대로 서해상으로 진행하는 예보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웬지 불안합니다. 일본 미국 대만 중국까지 같은 진로로 예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태풍의 진로를 볼 수 있는 눈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웬지 불안합니다. 일본 미국 대만 중국까지 같은 진로로 예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태풍의 진로를 볼 수 있는 눈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눈앞에 태풍이 마음대로 바꾸어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하 반기성 선생께서 저술한 '태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기상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간증입니다.

예보실에 나가 기상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20여년 동안 태풍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한 감각이 살아 꿈틀거렸습니다. 계절적으로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태풍의 경우 세력이 약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움직일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전날 자료를 뒤집고 태풍이 동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추석에 가족과 함께 지내던 조종사와 함박사, 정비사들이 비상소집됐습니다.

공군의 모든 예보는 기상대나 기상대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지원합니다. 그러나 태풍의 경우 중앙기상부에 예보 전권이 있습니다. 13일부터 예하 기상부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의 예상과는 물론 다른 나라와도 전혀 다른 예보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예보를 이렇게 내셨습니까? 일본이나 미국의 박사학위자들이 다 엉터리란 얘기를 하니까, 울해 올라왔던 태풍을 보십시오. 일본과 미국측에서 예보한 진로가 다 맞았잖아요. 도대체 부장님은 무슨 근거로 동쪽으로 이동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보가 틀리면 부장님이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우리 기상전대의 위상에 나는 흠집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14일 자정 무렵 북서진하던 태풍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몇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빙빙 돌았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대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

상부장 반기성 대령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일 저녁 텔레비전 뉴스의 기상예보도 반기성 대령과 반대되는 태풍 예상 진로를 내놓았습니다. 4일 동안 동료와 부하들의 송곳같은 질책에도 꺾였는데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주시길 있었기 때문에 곧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16일 새벽 6시, 태풍 사오마이는 반기성 대령의 예보대로 정확히 사천공항 동쪽으로 상륙하여 시속 45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한반도 영남지역을 단 12시간 만에 관통하였습니다. 비의 양과 바람의 속도까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의 진로를 가르쳐주시고 이토록 키셨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세주가 권능을 행하는 이유

결론적으로 1981년 이후부터 한반도에 불어오던 어떤 태풍도 벼농사를 흉년들게 하지 못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한반도 남쪽바다에서 태풍을 동해나 서해로 비껴가게 하거나 기류에 단비를 동반하는 효태풍으로 화하게 하는 등 마음대로 조종하셨기 때문입니다. 2003년 1월 1일 이슬성신절, 이긴자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태풍을 막는다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사인불인 천신강(似人非人 天神降!)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인간 사람 몸만 입었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제단에 오려 나온 사람들은 다 알죠? (네) 이 사람이 말만 던지면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안 됩니까? (그대로 됩니다)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태풍 못 불어오게 한다.' 그랬죠? (네) '여름장마 못 지게 한다.' '우리나라 전쟁 못 일어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사람, 5대 공약을 왜 했느냐 하면, 진짜 구세주라는 걸 알아보라고 하기 위해서, 바로 구세주야! 5대 공약을 이행하는 거지, 구세주가 아닌 사람은 이런 5대 공약 같은 걸 이행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고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합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20>

용화교주 미륵과 극락교주 아미타의 실체는?

용화교주인 미륵불은 극락교주 아미타 부처와의 차이는 영육과 능력의 차이다.

앞서 미륵이 아미타라는 석가모니의 불경에서 이야기했는데 열반경의 동기일명호(同其一名號)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즉 미륵보살이 성불하여 미륵부처님(彌勒佛)이 되고 미륵여래가 되기까지 피눈물과 마귀와의 격렬한 투쟁으로 이루어진 50년간의 길고 긴 수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극락교주 아미타부처님은 차이가 뭐가요?

석가모니는 아미타부처님에 대해 불경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아미타경(阿彌陀經)

爾時佛告長老舍利弗 從是西方過十萬億佛土
이시불고장로사리불 종시서방과십만억불토
有世界名曰極樂 其土有佛號阿彌陀
유세계명왓극락 기도유불호아미타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사리불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십만억 불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을 극락이라 하고 그 땅에 이름이 아미타인 부처님이 계신다."

해설 : 여기서 석가모니는 제자인 사리불에게 서쪽 방향을 이야기한다. 서쪽 방향은 오행상 서방(西方)을 말하는 것이고 운세는 금운(金運) 의미한다.

미륵부처님도 동방 아축불(阿閼佛)을 거쳐 서방 금운을 타고 온다고 했는데 아

미타불도 미륵불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아미타부처의 별명이 몇 가지 있는데 수명이 한량없이 길어 무량수불(無量壽佛)이라고 하며 또 극락은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미타부처의 몸에서 끝없이 빛이 방출되기에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절집에서 보면 아미타부처는 손에 감로(甘露)를 들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 준다고 한다. 이 감로가 마시는 차(茶)가 아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체인 빛(光)이라고 지난번 밝힌 바 있다.

감로에 대해 석가모니는 열반경에 기록 하길,

[예] 대반열반경 31권 기법보살품(迦葉菩薩品) 제 24-1

涅槃亦名甘露 亦名甘露
열반역명열반...역명감로

열반은 또 열반이라고 이름하고...또 한 감로라고 하며...

[예] 대반열반경 9권 보살품(菩薩品) 제 16

大涅槃光能入衆生諸毛孔故
대열반광능입중생제모공고
衆生雖無菩提之心 而能爲作菩提因緣
중생수무보리자심 능유작보리인연
是故復名大般涅槃
시고부명대반열반

대열반(감로)의 빛이 중생들의 모든 털구멍을 통하여 들어가므로 중생이 비록 보리의 마음이 없다 해도 능히 보리를 짓게 하는 인연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다시 이르면 대반열반(위대한 감로)



아미타부처는 손에 감로(甘露)를 들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 준다(위의 사진은 감로광명을 촬영한 모습)

이라고 부르느니라.

해설 : 석가모니가 이 경에 말을 달리 하면서도 결국은 한가지 의미에 표현을 달리 하니 제자들이 헤메고 만 것이다. 그러나 지난 호의 글처럼 미륵부처님이 아미타불이라는 동기일명호(同其一名號)로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극락까지는 길이 멀다.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마귀에게 패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쪼개져 아담은 남자가 되고 해와는 여자가 되어 분열과 죽음이 이어져 오는 마귀가 점령한 인간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속의 마귀를 죽이고 신인합일(神人合一) 성불하여 1980년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明鐘